

소설의 대화성 연구

— 『삼대』의 담론과 이념을 중심으로

임 경 순*

1. 서론

소설은 주체들의 담론¹⁾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주체가 사용하는 이 다양한

* 서울대 대학원

1) 담론(discourse)은 연구 영역에 따라 강조점이 다르다. 푸코, 알튀세, 페쉴 등의 담론이론은 담론을 '말하기/쓰기의 제도화된 양식'으로 본다. 이들은 담론이 쓰인 제도적인 측면과 함께 이데올로기적 측면에 주목한다. 채트먼, 쥬네뜨, 바르뜨 등의 구조주의 이론에서는 담론을 이야기를 표현하는 매체로 본다. 따라서 이들은 담론의 구조적인 측면을 주목한다. 반면에 바흐찐은 소쉬르 류의 구조주의 담론이론과 담론을 심리현상이나 단순한 이데올로기의 반영으로 보는 이론들을 모두 비판한다. 그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활동하는 주체들의 말을 주목한다. 이들의 말은 타자를 지향하며, 타자의 말에 대한 응답을 지향한다. 이들 주체들의 말은 담론을 구성한다. 물론 주체들이 사용하는 말은 그들의 이념과 관련된다는 점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 이 글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측면이다.

위의 이론들이 갖는 담론에 대한 함의는 문학을 다양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한다. 이러한 담론의 유용성을 망각한다거나, 담론을 어느 한 측면으로 몰아가는 경직된 사고는 편협성을 면치 못한다. 그것은 다루고자 하는 대상 곧 문학의 말의 속성이 다양하고 풍부한데서 기인하는 자연스런 현상이기 때문이다.

담론은 소설의 의미를 구현하는 구체적인 매체이다. 따라서 주체들이 활동하고 있는 담론의 양상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으며, 담론과 주체의 이념의 관계는 무엇이며, 담론이 소설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할 것이다.

담론이 소설의 해석과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면 그 동안 소설의 담론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다는 것은 반성할 필요가 있다.

염상섭 문학에 대한 연구는 1960년대 이후에 활발히 전개되었다. 그 결과 염상섭의 문학은 우리 문학사에서 일정한 성과를 이룩했다는 평가에 이르게 되었다.

염상섭 문학에 대한 연구는 문예사조적인 연구,²⁾ 작가론적인 연구,³⁾ 문학사회화적인 연구,⁴⁾ 기법적인 연구,⁵⁾ 담론차원의 연구⁶⁾ 등을 들 수 있다.⁷⁾ 이 가운데 특히 담론차원의 연구는 기존 연구의 편향성을 극복하고 작품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三代』와 관련된 연구도 이같은

-
- 2) 백 철, 『조선신문학사조사』, 신구문화사, 1968.
정명환, 「염상섭과 졸라」, 『염상섭 문학연구』, 민음사, 1974.
김학동, 「자연주의 문학론」, 『한국근대문학연구』, 서강대인문과학 연구소, 1969.
이어령, 「이해와 모순의 여울목」, 『사상계』, 1973.
김치수, 「자연주의재고」, 『한국문학의 이론』, 민음사, 1974.
 - 3) 신동욱, 「염상섭론」, 『창조』 26호, 1972. 10.
홍시중, 「염상섭론」, 『현대문학』 105-108호, 1963. 9~12.
김종균, 「자아실현과 시대인식」, 『한국근대작가연구』, 삼지원, 1985.
김윤식, 『염상섭연구』, 서울대출판부, 1987.
 - 4) 정호웅, 「식민지 현실의 소설화와 역사의식」, 『세계의 문학』 41호, 1986. 가을.
김 현, 「식민지시대의 문학」, 『문학과 지성』, 1971. 가을호.
유병석, 「염상섭 전반기 소설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85.
김윤식, 『한국근대문학양식논고』, 아세아문화사, 1980.
유문선, 「식민지시대 대지주계급의 삶과 역사적 운명」, 『민족문학사연구』, 창작과 비평사, 1991.
김동환, 「1930년대 한국 장편 소설 연구」, 서울대 대학원 박사논문, 1993.
 - 5) 김종균, 「염상섭소설의 구조적 고찰」, 『국어국문학』 51호, 1971.
구인환, 「염상섭의 소설고」, 『김형규교수정년퇴임기념논문집』, 1976.
박해주, 「염상섭 단편소설 연구」, 이대 박사논문, 1993.
 - 6) 우한용, 「염상섭소설의 담론구조」, 『한국현대소설구조연구』, 1990.
 - 7) 문학교육의 관점에서 소설의 내적 형식으로서의 아이러니와 관련된 논의도 있다.
김성진, 「아이러니를 통한 소설의 현실 인식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1994.

범주로 묶을 수 있다.

『三代』와 관련하여 이 방면의 연구는 『한국현대소설구조연구』⁸⁾에서 이루어졌다. 이 글은 기존 연구의 편향성을 비판하고, 언어 차원의 연구를 주장함으로써 작가의 담론 개입, 담론의 대화적 관계, 대화와 서술의 관계, 인물의 성격과 담론구조, 사상과 담론의 양상 등을 논구함으로써 이 방면 연구의 단초를 보여준다. 또한 『한국문학의 근대성과 탈근대성』⁹⁾에서 나병철은 리얼리즘 소설을 독백적 소설과 대화적 소설의 두 유형으로 보고, 『三代』를 대화적 소설로 보는 관점에서 인물의 대화성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글은 담론 양상과 이념과의 관련성을 소홀히 다룸으로써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과 앞의 우한용 교수의 글은 염상섭 문학에 대한 새로운 차원을 열음으로써 해석의 다양성과 새로운 문학사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글에서는 선행 연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소설의 대화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 대화성¹⁰⁾에 따른 소설의 유형을 살펴보고 『三代』¹¹⁾를 통해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나아가 담론과 이념의 관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문학텍스트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평가의 가능성을 탐구하고자 한다.

8) 禹漢鎔, 『韓國現代小說構造研究』, 삼지원, 1990.

9) 나병철, 『한국 문학의 근대성과 탈근대성』, 문예출판사, 1996.

10) 소설의 주체들은 본질적으로 타자를 지향한다. 따라서 주체의 담론에는 타자의 말이 수용되거나 타자의 말에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이처럼 소설에서 타자의 담론과 주체의 담론이 상호작용하는 본질적인 성질을 대화성이라 한다. 이 대화성의 정도는 소설마다 다르게 나타나는데 크게 타자의 담론에 대한 수용과 반응이 활발하고 주체와 타자의 담론이 독자성과 자율성을 유지하는 대화적 담론과 그렇지 않는 독백적 담론으로 양분할 수 있다. 바흐진은 소설의 대화성을 소설을 이해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본다.

11) 이 글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소설은 동아출판사 발행 『삼대』(1996)이다. 이 소설은 『조선일보』(1931. 1. 1~9. 17)에 연재된 소설이다.

2. 소설의 담론과 이념

지금까지의 『三代』에 대한 논의는 “1930년 무렵 식민지 서울 한복판에 살았던 한 중산층 집안의 보수적 현실주의 이념을 탐구한 작품”¹²⁾이라는 평가로 수렴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평가는 작품을 작가의 단일 의식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거나 작품은 하나의 주제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는 입장이다.¹³⁾ 그러나 장편소설을 전적으로 어떤 단일한 주제를 지닌 것으로 보기에 무리가 따른다. 예컨대 인물을 중심으로 작품을 읽어 나갈 경우 어느 인물의 관점에서 작품을 읽느냐에 따라 작품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인간의 삶을 가장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장편의 속성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따라서 소설을 해석하는 관점도 달라질 필요가 있다. 다양한 관점에서 소설을 해석하는 방향에서 나아가야 한다. 이런 점에서 소설의 담론에 주목하는 관점은 의의를 지닌다.

소설의 해석에서 담론을 떠난 논의는 논리적 근거가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과 담론은 주체의 이념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작가의 말과 인물의 말의 관계에 따라 소설을 두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말의 유형이나 그 유형의 구성배치가 어떠한 간에, 작자의 의미 부여나 가치 판단은 그 밖의 어떠한 것보다도 우위에 서서, 애매성이 없는 통일된 전체로 형성되지 않으면 안되는 독백적 소설이다. 이 경우 작품의 어느 부분이나, 어느 말 속에서 타인의 말을 강조한다는 것은 작자 자신의 직접적인 말이나 굴절된 말을 나중에 한층 더 강하게 들리게끔 하기 위한 작자의 속셈에 불과하다. 하나의 말 속에서 두 목소리가 서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어떠한 논쟁도 사전에 결정된 일이며, 그것은 보여 주기 위한 그럴싸한 논쟁에 지나지 않는다. 완벽한 의미를 가진 작자의 의미부여는 조만간 하나의 말을 중심으로 하나의 의식으로 집중하게 되며, 모든 말은 하나의 목소리로 집중하게 되어 있다.¹⁴⁾

12) 김윤식·정호웅 공저, 『한국소설사』, 예하, 1995. 177면.

13) 이러한 인식중심의 단일 논리는 Hegel과 Lukács에 닿아 있다. Hegel과 Lukács에게서 찾을 수 있는 진행형 의식의 일원적이고 끊임없이 상향이동하려는 몸부림 대신 Bakhtin은 역사를 지속과 대화의 지속적인 경쟁으로 본다. Michael Holquist, *Dialogism*,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1990. 75면.

14) M.바흐진, 김근식 역, 『도스토예프스키 시학』, 정음사, 1988. 293~294면.

반면에 대화적 소설은 독백적 단일 양식이나 단일 의미에 예속되지 않는, 각각 독점적이고 자율적인 말이나 의미를 극도로 긴장된 역동적인 관계 위에 놓는다. 여기서는 작가의 말 대신에 인물들의 혼성된 말들이 들려온다. 인물들의 말은 작가에 대해 타자성을 지닐 뿐아니라 인물들 각자에 대해서도 타자성과 대화성을 가진다.¹⁵⁾

이렇게 소설을 본다면 소설을 단일 논리로 보는 편협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 소설은 단일한 관점을 드러내기도 하고, 단일한 관점으로 수렴될 수 없는 의미를 드러내기도 한다. 이러한 소설의 차이는 소설 속의 담론의 차이로 연결된다. 바흐젠에 따르면 소설 속의 담론은 화자의 최종적인 의미상의 판단의 표현으로서 직선적이고 직접적으로 자신의 대상을 향한 담론과 재현된 인물의 말인 객체화된 담론, 이중적인 목소리의 담론인 타자의 담론을 지향하는 담론으로 유형화 할 수 있다.¹⁶⁾ 이들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 장에서 다루고자 한다.

-
- 15) 나병철, 앞의 책, 324면. 전자에는 염상섭의 「만세전」과 이기영의 『고향』을 들 수 있다. 후자에는 염상섭의 『三代』, 김남천의 「경영」, 「맥」을 꼽을 수 있다.
 16) 바흐젠에 의하면 소설 속의 담론은 다음과 같이 유형화된다. (Mikhail Bakhtin, *Problems of Dostoevsky's Poetics*, Univ. of Minnesota Press, 1984, 199면.)

- I. 화자의 최종적인 의미상의 판단의 표현으로서 직선적이고 직접적으로 자신의 대상을 향한 담론.
- II. 객체화된 담론(재현된 인물의 말)
 1. 사회 전형적 결정 요소가 지배적인 담론
 2. 개인적 결정 요소가 지배적인 담론
- III. 타인의 담론을 지향하는 담론(이중적 목소리의 담론)
 1. 단일 방향의 이중적 목소리를 가진 말
 - a. 양식화
 - b. 서술자의 서술
 - c. 작자의 의도를 전해주는 인물의 비객체화된 담론
 - d. 일인칭 서술
 2. 여러 방향을 가진 이중적 목소리의 말
 - a. 모든 뉘앙스를 가진 패러디
 - b. 패러디풍의 일인칭 서술
 - c. 패러디 풍으로 재현된 인물의 담론
 - d. 액센트를 바꾼 타인의 말의 모든 전달

산문 작가에게 있어서 세계는 타인의 말로 가득차 있다. 그러기에 소설에서의 담론은 담론 주체들의 관계를 파악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며, 소설을 이해하는데 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소설을 소설로 만들어 주며, 소설의 문체적 고유성을 보장해주는 근본적인 조건은 바로 말하는 사람과 그의 담론이다. 그런데 말하는 사람 즉 주체의 담론은 특별한 형식적 장치를 갖고 있으며, 사회적 담론이라는 점, 세계를 바라보는 특정 방식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담론은 단순히 말 자체가 아니라 세계관 내지 이념과 연관된다.¹⁷⁾

그런데 어떤 소설에서 그려지는 모든 것이 화자는 아니며 사람들도 오로지 화자로서만 그려질 필요는 없다. 극이나 서사시 속의 인물과 마찬가지로 소설 속의 인물도 행동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언제나 이념에 의해 조명되며, 언제나 등장인물의 담론-비록 그 담론이 아직까지는 잠재적인 것에 불과하다 할지라도-과 연결되어 있고, 이념적인 모티프와 관련되어 명확한 이념적 입장을 표현하게 된다. 소설 속의 사건과 등장인물의 개별적인 행동은 그의 이념적 견해인 그의 담론을 검증하고 또 드러내기 위해서도 본질적인 것이다.¹⁸⁾

3. 능동적 유형(반영된 타인의 담론)

- a. 은닉된 내적 논쟁
- b. 논쟁적으로 채색된 自傳과 告白
- c. 타인의 말을 결눈질하는 모든 담론
- d. 은닉된 대화

이 도식은 물론 추상적 성격을 띠고 있다. 구체적인 말은 여러 변종과 유형에까지도 동시에 속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살아 있는 콘텍스트 속에 있는 타인의 말과의 상관관계는 역동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 17) 이 말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측면을 주의깊게 구별해야 한다고 바흐젠은 말하고 있다. (1) 소설에서는 말하는 사람과 그의 담론이 언어에 의한 예술적 묘사의 대상이다. 담론은 이야기를 위한 매우 특별한 형식상의 장치들과 어휘의 묘사를 위한 고유한 방식들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2) 소설 속의 화자는 본질적으로 구체적인 역사에 의해 규정되는 사회적 개인이며, 그의 담론도 '개인적 방언'이 아닌 (맹아상태의) 사회적 언어이다. (3) 소설 속의 화자는 언제나 어떤 정도로는 이념인(理念人, ideologue)이며, 그의 말은 언제나 이념소(理念素, ideologeme)들이다. 소설 속의 특정 언어는 언제나 세계를 바라보는 특정 방식이며, 따라서 사회적 의미를 추구하게 마련이다. 미하일 바흐젠, 전승희, 서경희, 박유미 역, 『장편소설과 민중언어』, 창작과비평사, 1988. 150~151면.

어떤 세계의 고유한 이념을 드러내는 데에는 그 세계의 담론일 수밖에 없다. 어떤 이념적 세계가 말을 하게한다는 것은 곧 그 말을 사용하는 주체의 담론과 이념이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는 것을 의미한다.

3. 담론 유형

『三代』의 담론은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유형은 물론 주체들과 그들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들이다. 중요한 것은 주체들의 담론은 그들의 이념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담론은 늘 주체들의 이념과의 관계에서 살펴야 한다. 이 장에서는 바흐첸의 논의에 따라 『三代』의 담론을 몇 가지로 유형화 하고자 한다.

3.1. 작자의 직접적인 말

재현의 원천인 실제 세계와 작품에 재현된 세계 사이에는 명확한 범주상의

-
- 18) 소설 속의 등장인물의 행동은 언제나 명확한 이념적 경계 안에서 일어난다. 그는 서사시의 단일한 세계가 아닌 자기 자신의 사상적 세계 안에서 살고 행동하며, 그의 행동과 담론에 구현되는 자기 자신의 세계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과연 어떤 인물의 담론을 묘사하지는 않은 채 그의 행위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행위들만을 통해서 그의 이념적 견해와 그 이념체계의 핵심을 밝히는 것은 불가능한가? 라는 물음이 제기될 수 있다. 여기에 대해 바흐첸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고 단언한다. 그 이유를 어떤 낯선 이념적 세계가 소리를 내게끔 해주지 않고서, 그리고 우선 그 세계에 고유한 특별한 담론을 밝히지 않고서, 그 세계를 적절하게 묘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결국 어떤 세계에 고유한 이념을 그리는 데에 진정으로 적절한 담론은 그 세계 자신의 담론-비록 그 담론 자체가 아니라 오로지 작자의 담론과 연결되는 경우에 한한다 해도-일 수밖에 없다. 다중적 언어세계 내에 뚜렷한 하나의 언어로서 사회적인 의미와 보다 광범위한 일반적 적용을 추구하는 말하는 사람과 그의 담론이 소설을 소설답게 만들어주는 주체로 규정된다면, 소설문체론의 중심문제는 언어의 예술적 묘사의 문제, 즉 언어의 형상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미하일 바흐첸, 전승희·서경희·박유미역, 앞의 책, 151~153면.

경계선이 존재한다. 그러나 종종 재현된 세계와 텍스트 외부의 세계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속류 반영론자들이 그 경우이다. 마찬가지로 어떤 작품의 창조자인 저자와 인간으로서의 저자를 혼동해서도 안되며, 텍스트를 재창조하고 새롭게 만드는 여러 다양한 시기의 청중이나 독자를 그 당대의 수동적인 청중이나 독자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이런 모든 혼동은 방법론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범주상의 경계선을 절대적으로 침투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렇게 되면 모든 것을 지나치게 단순화할 뿐 아니라 독단적으로 세세하게 구별하는 데에 빠질 우려가 있다.) 또한 허용될 수 없다. 즉 아무리 이 두 세계 사이에 놓여 있는 범주적인 경계선이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들 세계는 서로 분리할 수 없게끔 얽혀 있고 끊임없이 서로 작용한다.¹⁹⁾

소설이 다양한 주체들이 개입하는 담론 형상물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작가나 독자의 개입이 당연하다 하겠다. 다음은 작가가 개입하고 있는 부분이다.

경애가 상훈이의 첫 편지를 받은 지 다섯 달도 못 되어서 경애는 학교를 나오 고야 말았다. 그 다섯 달 동안의 생활을 독자는 궁금히 생각하리라. 그러나 지나 간 일을 후벼파서 백일하에 내놓은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필자는 앞길이 바쁘니 수시수처에서 다시 보고할 기회가 있겠거니와 경애는 그때 학교를 나오면서 서울을 떠났다.(100면. 밑줄 필자²⁰⁾)

학교 교원으로 있을 당시의 경애가 상훈의 첩이 되는 과정을 서술하면서 작가가 개입한 장면이다. 물론 작가는 독자까지도 의식하고 있다. 그런데 이 때 개입한 ‘필자’는 전후 관례로 보아 『三代』를 서술해 가는 서술자와 다름바가 없다고 판단된다. 필자가 ‘수시수처에서’ 보고할 기회가 있다고 했는데, 그 보고자가 다름 아닌 서술자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 보고 내용은 이렇다.

이 방은 언제 보나 산뜻하고도 아늑하고 반가웠다. 방이 반가운 것이 아니라

19) M. M. Bakhtin, *The Dialogic Imagination*, University of Texas Press, 1981, 252~257면.

20) 앞으로 작품 인용에 사용된 밑줄이나 번호, 다른 글씨체는 필자에 의한 것임을 밝혀둔다.

이 방이 주는 인상이나 과거의 연상이 반갑고 유쾌한지 모르는 것이다. 오 년 전 —그때도 이런 겨울날이었지만 그때와 변한 것은 조선식으로 꾸며 놓았던 보료며 (...중략...) 방안을 휘 둘러다보니 처음 경애와 이 방에 들어앉을 때의 생각이 아름다운 꿈처럼 머리에 떠올라 오는 것이다.(168면)

상훈이가 경애를 만나기 위해 K호텔에 들렀다가, 오 년 전에 경애와 있었던 관계를 회상하는 부분이다. 이 부분이 위에서 말한 다섯달 동안의 생활의 일부에 해당된다. 이렇게 본다면 필자는 서술자이며 동시에 작자에 해당한다. 작자가 소설에 개입하는 부분은 또 있다.

덕기는 다시 안심이 되면서 그 발기를 자세자세 들여다보고 앉았다.....
필자는 여기에 조씨 집 재산이 어떻게 분배되었는가를 잠깐 공개할 필요가 있다.

귀순이(수원집 소생)—오십 석
수원집—이백 석
덕희(덕기 누이)—오십 석
덕희 모(며느리)—백 석
덕기 처—오십석
상훈—이백 석
덕기—천오백 석
창훈—현금 오백 원
지주사—현금 이백 원

이것은 물론 대략 쳐서 그렇다는 것이니, 그 중에 수원집의 이백석 같은 것은 상훈이의 이백 석의 거의 갑절이나 될 것이요, 또 덕기의 천오백 석이라는 것도 나머지를 다 쓸어 맡긴 것이니 실상은 이천 석까지는 못 가도 천칠팔백 석은 될 것이다.(354~355면)

이 부분은 서술자가 덕기의 행위를 서술하다가 ‘필자’로부터 작자가 개입한 부분이다. 그런데 작자가 개입한 부분도 덕기가 읽고 있는 ‘발기’의 내용을 서술자가 밝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서술자=작가의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본다면 서술자는 작가와 근접해 있음으로써 작가의 말을 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작가와 서술자의 직접적인 말은 플라톤의 디에게시스에 해당한다.²¹⁾ 대상을 향한 직접적인 말은 자기와 자기의 대상밖에 모르며 거기에 최대한 적응하려고 노력한다. 이것은 건축가의 계산에 들어 있는 필요 불가결한 것이면서 전체적 건축으로 볼 때는 소용되지 않는 재목이다.²²⁾

『三代』의 서술자는 인물의 말을 끌어와 논평하기도 하고, 인물의 시점에서 인물의 생각을 서술하기도하고, 서술자 자신의 서술을 시도하기도 한다.

(가) 그러나 없는 사람이 있는 친구와 어울리면 병정 노릇이나 하는 것 같은 일종의 굴욕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겠고, 또 그렇게 구척척하거나 더럽게 굴지 않고 자기의 자존심을 더럽히지 않으려는 것이 취할 모라고 아직 경력 없는 덕기 건만 돌려 생각도 하는 것이었다.(17면)

(나) 주부의 눈에 비친 덕기는 해끄무레하고 예쁘장스러운 똑똑한 청년이었다. 이 여자에게는 조선인이라는 경멸하는 마음은 벌써 없었으나 그 그 해끄무레하고 예쁘장스러운데다가 학생복이나마 값진 것을 조출하게 입은 양으로 보아서, 어느 부잣집 아기거니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경멸하는 마음이 들었다.(18면)

(다) 이 여자는 올 가을에 처음으로 이 장사를 벌인 터이라, 드나드는 손님이 하도 많지만, 이런 장사에 저들어서 여간 것은 눈에 띄지 않을 만치 신경이 굳어 지지 못한 탓이랄까, 여간한 여염집 여편네의 호기심으로 처음 보는 남자마다 유난히 호기심을 가지고 인금 나름을 하는 것이다.(18면)

(라) 피혁이는 보도 들도 못 하던 김병화더러 애인과 같이 반찬가게나 벌이고 생활안정이나 하여서 살이나 피둥피둥 짜라고, 수룩 만리의 머나먼 길을 갖은 고초를 다 겪고 다녀간 것인가…….

21) 데이비드 루지, 「바흐친과 현대 소설의 담론」, 『바흐친과 문학이론』(여흥상 위음), 문학과지성사, 1997. 316면.

22) 양식화와 유사한 것으로서 구성상 작자의 말을 대신하는 서술자의 서술(3유형)이 있다. 그것은 문어의 형태로 전개되기도 하고, 구어의 형태(예컨대 『태평천하』의 서술자)로 전개되기도 한다. 여기서도 타인의 말투는 이야기를 진행시키는 데 작자에게 필수불가결한 입장과 시점으로서 작자에 의해 사용된다. 순수하게 객체화된 서술자의 말은 그가 주인공 중의 하나이고 구어체서술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을지라도 있을 수 없다(미하일 바흐친, 이득재 역(1988), 앞의 책, 275면). 작가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서술자의 말을 사용하여, 자신과 타인의 말 사이의 거리를 우리로 하여금 명확하게 느끼도록 해준다. 또한 서술은 작자의 구상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직선적인 작자 자신의 말이 될 수가 있다.

피혁이가 그 돈을 줄 때 다만 흥경애의 손만을 거쳐 넘어가게 한 것이 실수라고도 할 것이다.(381면)

(가)는 인물의 심리를 서술한 것이고, (나)는 주부의 시각을 통한 덕기에 대한 생각을 서술한 것이고, (다)는 서술자가 주부에 대한 서술을 한 것이다. 그리고 (라)는 서술자가 사건의 밖에 서서 사건을 바라보고 생각하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히기도 한 것이다.²³⁾ 이러한 담론은 직접적인 지시적 이해(말의 제1유형)를 계산에 둔 직접적 대상을 향한 말 즉, 이름짓고, 전달하고, 표현하고, 묘사하는 데 사용되는 말이다.

3.2. 객체화된 담론

묘사된 혹은 객체화된 말(제2의 유형) 가운데 가장 전형적이고 널리 쓰이는 형태는 주인공의 直接話法이다. 이 직접화법은 직접적인 지시적 의미를 띠고 있지만 작자의 말과 동일한 평면상에 있지 않고, 그것을 전망할 수 있는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다. 주인공의 직접화법은 그 자신의 대상의 시점에서 이해될 뿐만 아니라 그 스스로가 특징적이고 전형적이고 색채적인 말로서 나름대로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다. 직접화법으로된 부분만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글세, 갈 새가 있을라구요. 아무쪼록 가겠습니다마는 누구든지 보내십쇼그러.”

“어디서 오셨어요?”

“김선생요? 편찮아 누우셨어요.”

“못 나오면 좀 들어가 보아도 좋을까요?”

“잠깐 가만히 계세요.”

“조군인가? 들어오게!”

“웬일인가? 주호가 술병이 났나?”

“어서 들어오게. 에 추워!”(47~49면)

23) 이러한 서술자의 서술은 ‘섬세한 묘사와 정치한 기교와 면밀한 관찰’의 중요성에 눈떴고 이로써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 김윤식·정호웅 공저(1995), 앞의 책, 166면.

이런 화자의 직접화법은 서술자의 콘텍스트 속에 위치해 있다. 즉 서술자의 담론과 인물의 발화라는 담론의 중심과 단위가 두 개 있는 셈이다. 인물의 담론은 타인의 말로서 특수한 성격적 윤곽이나 전형을 가진 사람의 말로서 취급되고 있다. 그러나 예문의 객체화된 직접화법은 논쟁적인 말로 바뀌게 된다. 인물과 인물의 담론이 논쟁적인 성격을 띠는 것은 인물들의 이념이 부딪힌다는 것이다. 인물들의 이념이 부딪치지 않는 곳에서는 객체화된 인물들의 직접적인 말이 사용된다. 상훈이 조부가 덕기에게 물려준 재산을 털기위해 며느리와 나누는 대화 장면이 그렇다.

“이놈(상훈의 손자-인용자)은 몸 성하나? 어디 나갔니?”

“안방에서 잡니다.”

“애, 무얼 하시나 좀 건너가 보라.”

“그저 잡니까?”

“응, 애, 잠깐 들어오너라.”

“무얼 찾으세요?”

“사랑, 문갑 열쇠 어디 있는지 아니?”

“모르겠어요, 거기 어디 있겠어요”

“다르게 아니라 내 물건 하나를 초상 중에 문갑 속에 넣어 둔 것이 있는데, 경찰서에 곧 갖다 봐야 이 애가 놓여 나올 테구나…….”

“넌 정말 모르니?”(503면, 직접화법만 인용)

이 부분은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에서의 대화이다. 그렇기 때문에 논쟁적인 요소를 찾을 수 없고 객체화된 직접화법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양상은 병화가 원삼에게 훈계조로 대화하는 장면에서도 잘 드러난다.

요컨대, 객체화된 직접화법은 인물의 말이 독립적이지 못하고 서술자의 말에 종속되어 있으며 후자 속에서 하나의 요소로 포함되어 있다. 인물의 말은 작가적 이해의 객체로서 취급되고 있지, 결코 그 나름대로의 지시적 방향성의 시점에서 취급되고 있지는 않다. 반대로 작자의 말은 그 나름의 직접적인 지시적 의미를 띤 방향 속에서 문체론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²⁴⁾

24) 객체화된 말은 오로지 대상만을 향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 말 자체는 타담론 주체가 지향하는 대상도 된다. 그러나 이 별도의 지향은 객체화된 말의 내부로 들어

3.3. 은닉된 논쟁

바흐전은 내부적으로 논쟁적인 말-적대적인 타인의 말을 탐색해 보는 말-은 실제적인 일상적 말과 마찬가지로 문학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지만 문체 형성상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말한다.²⁵⁾ 일상적 언어에서 ‘남의 채소 밭에 돌 던지는’ 식의 모든 말과 ‘가시돋친’ 모든 말은 거기에 속한다. 또한 자기 자신을 미리 거부하는 비하시킨 수사로 가득 찬 말, 失言, 양보, 핑계 등등의 말이 있다. 이러한 말은 타인의 말이나 대답, 반박을 앞에 두기도 하고 예감하기도 하면서 마치 웅크리고 앉아 있는 듯하다.

『三代』의 첫 장인 ‘두 친구’를 보면 병화가 덕기를 찾아왔는데, 만나자마자 하는 그들의 대화는 은닉된 논쟁의 말로 시작한다.

머리가 텅수룩하고 풀이 말이 아니라는 조부의 말눈치로 보아서 김병화가 온 것이 짐작되었다.

“야—그러지 않아도 저녁 먹고 내가 가려 하였었네.”

덕기는 이를 만에 만나는 이 친구를 더욱이 내일이면 작별하고 말터이니만치 반갑게 맞았다.

①“자네 같은 부르주아가 내게까지! 자네가 작별하러 다닐 데는 적어도 조선 은행 총재나…….”

병화는 부영계 먼지가 앉은 외투 주머니에 두 손을 찌른 채 딱 버티고 서서, 이렇게 비꼬는 수작을 하고서 꺾꺾 웃어 버린다.

②“만나는 족족 그렇게도 짓곳이 한마디씩 비꼬아 보아야만 직성이 풀리겠나? 그 성미를 좀 버리게.”

덕기는 병화에게 ‘부르부아, 부르주아’하는 소리가 듣기 싫었다. 먹을 게 있는 것은 다행하다고 속으로 생각지 않는 게 아니나 시대가 시대이니만치 그런 소리가—더구나 비꼬는 소리는 듣고 싶지 않았다.(12면)

가지 않고 그 말의 의미나 어조를 바꾸는 일이 없이 그 말을 하나의 총체로서 받아들여 자신의 과제에 따르게 한다. 그것은 객체화된 말 속에 다른 지시적 의미를 넣을 수 없다. 객체가 되어버린 말은 마치 자신이 그것을 깨닫고 있지 못하는 것과 같다. 이는 자기가 하는 일을 남들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과도 같다. 따라서 객체화된 말은 직접적인 단일 목소리의 말처럼 들린다.

M.바흐전, 김근식 역(1988), 앞의 책, 273면.

25) M. 바흐전, 김근식 역, 앞의 책, 283면.

①은 병화의 말이다. 병화의 말은 덕기를 지향하는 은닉된 논쟁으로 충만하다. 서술자는 이 말을 ‘비꼬는 수작’이라고 하고 있다. ②는 덕기의 응답이다. 덕기는 병화의 말이 자신을 비꼬는 말임을 알고 있다. ‘부르조아’라는 말에 덕기는 어떤 시대적인 위압감을 느끼고 있다. 그런데 덕기가 병화의 비꼬는 논쟁투의 말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미를 좀 버리게’라고 말하는 정도이다. 이념의 갈등이나 사상의 갈등의 차원까지는 이르지 못한다. 덕기도 병화의 일방적인 비꼬에 당하지만은 않는다. 덕기 역시 병화의 논리로 되받아친다(13면). 그러나 이내 병화의 말에 의해 다시 대응된다. 그런데 병화의 말은 병화가 집에서 나오으로써 덕기의 반응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이들의 은닉된 논쟁투의 말은 결말을 보지 못한다.

“그런 귀족 취미는 넣어 두게. 양식 한 접시면, 이 사람아, 살 한 되가 넘네. 그런 넉넉한 돈이 있거든 나 같은 유위한 청년의 사업에 보태게.”

“구렁이 제 몸 추듯 잘도 추내만 좀더 유위해지면 삼 년 동안은 고무공장 계 집애의 밥을 먹고 들어앉을 셈일세그려.”

①덕기도 지지 않았다.

“우리집 주인 딸이 무척 마음에 키이나 보이그려.”

“자네 신세도 딱하고 그 계집애도 가없으니까 말일세.”

“내 신세가 왜 딱한가?”

하고 병화는 약간 불쾌한 기색을 보이다가,

②“그러기에 자네 같은 무위의 프터 부르는 크게 반성하여야 한다는 말일세.”

하는 어조가 지금까지의 농담과는 다르다.

“이건 무슨 판전인가. 그러나 대관절 어딘가?”

“다-왔네.”(15~16면)

병화의 말에 덕기도 지지않고 맞받아 말하고 있다. 그러나 병화의 말, 즉 ②에 대한 더 이상의 덕기의 응수가 없다. 지금까지의 덕기와 병화의 말은 서로 맞선 형국이지만 결국은 병화의 목소리로 기우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三代』의 인물 가운데 사상적인 편향을 보이는 인물군인 병화, 홍경애, 주부 등을 대할 때 분명해진다.²⁶⁾ 이들은 덕기의 의식을 제약하는

26) 사상적인 편향을 보여주는 인물군

거멸뫼의 역할을 한다. 덕기는 병화나, 경애, 주부가 자기를 비꼰다는 생각에 눈치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26~27면). 그들은 덕기에게는 ‘탄세상’ 사람으로 보인다. 그러기에 원삼에 대한 병화의 혼계(252~253면)나 김의경에 대한 병화의 연설(259면)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소설이 전개됨에 따라 덕기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게 된다. 즉 개화기 세대인 아버지 상훈과 친구인 병화 등과도 일정한 거리를 획득하게 된다. 이러한 덕기의 이념은 병화와 덕기의 편지에서 잘 드러난다.

사상적 편향을 지닌 인물들의 대화적 관계가 같은 수준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일과 사랑의 논리(234면)에 서 있는 경애는 병화를 비웃음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225면).

그런데 덕기의 말은 가족을 대할 때는 달라진다.²⁷⁾ 부친 상훈과의 관계에서는 덕기의 말이 압도적인 형국이다.

부친이 아들의 공부에 대하여 묻는 것은 처음이다.(…중략…)

“경도제대로 들어갈까 하는데요.”

“그렇게 무어있니? 경성 제대로 오면 입학에 경쟁이 심한 것도 아니요 또 집안 형편으로도 좋지 않으나.”

“글쎄올시다. 그래도 좋겠지요”(…중략…)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는 게 무엇보다도 집안 형편에 좋고”

①부친은 말끝을 아물리지 않았다. 실상은 ‘내게도 좋겠다’는 말을 하려다 만 것이다.(…중략…)

“무슨 과가 지망이냐?”

“법과를 할까 보아요”(…중략…)

(가) 김병화(교역자) 부·모, 김병화, 피혁, 장훈

(나) 필순부(혁명가)·모(전여교사), 필순

(다) 홍경애 부(애국자)·모, 홍경애, 딸

김윤식, 『염상섭연구』, 서울대출판부, 1989. 576면.

27) 가계와 관련된 등장 인물

(가) 조의관, 부인, 수원집(서조모), 귀순

(나) 상훈, 부인, 홍경애(첩), 김의경(첩), 창훈

(다) 덕기, 덕기처, 덕희, 문기

(라) 아들(아가)

김윤식, 앞의 책, 574면.

“법과보다는 경제과나 상과를 하면 어떻겠니?”

“경제과는 해도 좋지만 상과는 싫어요.”

여기에도 덕기는 몽롱하나마 제 속다짐이 있는 것이었다.

“아무래도 좋지…….”

②부친은 아무쪼록 아들의 말을 거스르지 않으려는 듯이 가벼이 대답을 해 집
어치우고 나서 목소리를 낮추어서,(127~129면)

덕기 부친이 말끝을 맺지 못하고, 아들을 눈치보는 말을 하는 것은 재산 상속과 관련된다. “돈—그 돈도 아직 생긴 돈은 아니나—하여간 돈 앞에는 아들에게도 머리를 숙이게 되는 것이다”(128면). 그러나 덕기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병화와 대화를 나눌 때는 다른 말의 양상으로 변한다. 병화가 덕기를 비꼬는 말투로 변하고 만다(129면).

덕기 부친 상훈이 ‘아버진 성검’을 세우려는 것도 전적으로 체면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흥경애와 그 딸의 문제를 놓고 벌이는 덕기와 그의 부친과의 논쟁에서도 그렇다(133면). 덕기 부친이 덕기에게 한 말은 “이때까지 교회 사람이나 일반 사회에 대하여 경애와 아무 관계가 없는 듯이 변명하기 위하여 내려온 말을 자식에게도 되풀이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134면)이다. 그러기에 아버지로서 화를 참는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조상훈이 조의관과 언쟁을 벌인다거나, 조의관 사후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해부 문제에서 가족의 위치를 찾지 못하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 닿아 있다. 드디어는 재산을 스스로 훔쳐가는 사건을 일으키게 되고(33장), 결국 경찰서에서 덕기 앞에서 모욕당하기에 이른다(533면).

덕기와 그의 조부 조의관의 관계에 이르면 사정은 달라진다. 덕기는 이미 조부의 명을 받고 조부의 집에 들어와 살게 되었거니와 덕기에게 조모의 제사를 지내고 떠나라는 엄명을 받고 어떠한 응답적 대화를 하지 않는다. 덕기와 그의 조부는 대화적 관계가 성립될 수 없는 지경이다.

3.4. 은닉된 대화

『三代』에서 편지가 하는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덕기와 병화의 사이에 오가는 편지는 그들의 내면이 드러남에 따라 두 세계를 이해하는 단서를 제공

한다. 일반적으로 편지는 직접적인 대화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의 사상 혹은 삶의 태도를 무리없이 비판하기에 적합한 양식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동일한 장면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와 달리 다른 인물에 대한 언급이 자유롭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²⁸⁾

편지라는 형식 그 자체는 아직 말의 유형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편지는 그 속성으로 보아 제3유형의 마지막 변종의 말, 즉 반영된 타인의 말이 적합하다²⁹⁾고 할 수 있다. 편지는 원래 상대방 수신자의 입장에 민감하다. 편지는 대화의 응답과 마찬가지로 특정인을 향해 있고 그 사람이 취할 수 있는 반응이나 대답을 고려에 넣고 있다. 이 부재의 상대를 계산한다는 일이 편지의 큰 특징이다. 이러한 특징을 바흐진은 은닉된 대화성³⁰⁾이라 한다.

(가) 자네에게 충실한 친구임을 표시하여 또 자기의 신용을 자랑하려 왔던 것은 아닐세마는 필순 양을 만나고 가는 것만은 왔던 보람이 있는 것 같오이. 그러나 실없는 말을 할 줄 모르는 나이니 웃으며 이 글을 쓰지는 못하는 것일세. 내가 없어도 자네가 담배를 굵을 뜻하기에 내 벤또값을 두고 가네…… 일전에 실없는 말로만 하였지만 참 정말 필순 양이 공부할 의향이면 기별만 하게. 어떻게든지 도리는 있을 것이니…….(181면)

(나) 여보게, 바커스 퀴(여왕)의 우박 같은 키스—아니 실상은 진눈깨비 같은 키스이었던지 모르지만 어쨌든 불의에 맞보는 그 키스의 촉촉한 쾌감이 자네의 전송을 방해하여서 그날은 정거장에 못나간 것일세. 이것은 자랑이 아니요 핑계도 아니라 나에게도 난생처럼 당하는 행복의 절정(?)이 있었다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보고하는 것일 뿐일세. (...중략...) 왜 안 가고 싶을까마는 차마 발길이 나서 지를 앓네그러. 머리로 좀 꺾을 생각이 나고 옷의 먼지도 털로 싶고 될 수 있으

28) 우한웅(1990), 앞의 책, 239~240면.

29) M.바흐전, 김근식 역(1988), 앞의 책, 296면.

30) 상대방 대화자의 응답을 빠뜨리고 있으나 공통적인 의미는 조금도 파괴되지 않은 두 사람의 대화를 상상해 볼 수 있다. 두 번째 대화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고 그의 말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그 말소리의 깊은 흔적이 첫 번째 대화자의 실재하는 모든 말을 결정한다. 오로지 첫 번째 대화자 혼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이 대화임에는 틀림없다. 게다가 이 대화는 대단히 긴장되어 있다. 그 이유는 실재하는 말 모두가 한마디 한마디 신경써서 대답하고 보이지 않는 상대에게 반응하고, 이야기되지 않은 타인의 말을 자신의 밖에서, 자신의 배후에서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다. M.바흐전, 이득재 역(1988), 앞의 책, 284~285면.

면 크립도 발라 보고 싶으니 이 사람! 자네 웃으려나? 웃지 말게! 정말일세. 자네 일전에 그 굉장한 편지와 함께 내 담뱃값을 두고 갔데마는 이번에는 어쩌면 자네가 크립값까지 대어야 할지 모르겠네, 하하 (…중략…) 모르면 몰라도 자네도 아마 소위 첫사랑의 경험이 없는 모양이지만 나도 동정(童貞)은 지키지 못하였으나 연애한 경험은 없네. (…중략…) 훗일 그 애(필순-필자)의 배우자를 선택한다면 나 같은 무능자도 못쓰겠지만 자네 같은 유위의 청년도 거절하여야 할 것일세. (…중략…) 자네 생각에는 내가 흥경애라는가 하는 여자를 사랑할 자격이 있겠나. 자격 심사부터 해보아 주게. 아마 자네가 필순에게서 무자격한 것 이상으로 무자격할 것은 나도 모르는 것은 아닐세. 그러나 여보게, 나 보기에는 그 여자가 암만해도 보통 여자 같지는 않으니(184~187면).

(다) 자네는 왜 그렇게 낯뜨름대나? 비꼬지 않으면 노기를 품지않고는 말이 아니 나오나? 필순 양에 대한 이야기로만 하여도 그렇게 심하게 말할 것은 없지 않겠나? (…중략…) 서술자의 필순 행위 서술) 자네는 투쟁의욕-이라니보다도 습관적으로 굳어버린 조그만 감정 속에 자네의 그 큰 몸집을 가두어 버리고 쇠를 채운 것이 나 보기에는 가엾으니. (…중략…) 그건 고사하고 내게까지 그 소위 계급투쟁적 소감점으로 대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중략…) 투쟁은 극복의 전(全)수단은 아닐세. 포용과 감화도 극복의 유산탄만한 효과는 얻는 걸일세. 투쟁은 전선적, 부대적 행동이라 하면 포용과 감화는 징병과 포로를 위한 수단일세. 포용과 감화도 투쟁만큼 적극적인일세. (…중략…) 나도 내길을 걷노라면 자네 들에게도 유조한 때도 있고 유조한 일도 없지 않으리라는 말이세(237~239면).

(가)는 덕기가 서울을 떠나면서 병화집에 들러 남긴 편지이고, (나)는 병화가 덕기에게 한 편지이고, (다)는 덕기가 병화에게 한 답장 형식으로 되어 있는 편지를 필순이 훑쳐보는 것을 서술자가 옮겨적고 있다. (가)~(다)의 편지 어느 것이나 부재의 상대를 생생히 반영하고 있다. 편지의 청자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형국이다. 그리고 이 편지들에는 평소에 할 수 없는, 하지 못한 말들이 가득하다. 그 속에는 개인적인 사생활에서부터 이념 문제에 이르기까지 화자의 내면이 드러나 있다. 중요한 것은 병화 쪽에 기운감이 있는 덕기와의 대화가 이제는 편지를 통해서 덕기의 생각이 명확히 전달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의 밑줄친 부분은 그 한 예이다. 덕기야말로 덕기의 길을 가겠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따라서 『三代』는 어떤 인물의 목소리가 압도되어 나오는 독백적 소설이라기보다 인물의 목소리가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4. 주체의 이념과 담론

소설에서 말하는 사람과 그의 담론의 중요한 특성은 그것이 언어에 의한 예술적 묘사의 대상이라는 점, 소설 속의 말하는 사람은 사회·역사적 개인이며, 그의 담론도 사회적 언어라는 점, 그리고 소설 속의 말하는 사람은 언제나 이념인이라는 점이다. 소설 속의 특정 언어는 언제나 세계를 바라보는 특정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앞에서 『三代』의 담론은 주체의 관련 속에서 파악해 볼 때, 작가는 타자로서 서술자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작가가 직선적이고 직접적으로 자신의 대상을 향한 말을 하고 있음을 살폈다. 인물들의 담론은 인물들의 관계에 따라 이중적 목소리를 지니기도 하고, 객체화된 직접화법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三代』는 덕기와 병화를 중심으로 타인의 담론이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이중적 목소리를 드러내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담론 양상은 주체들의 이념과 불가분의 관련을 맺고 있는 바 이제 주체들의 이념과 담론의 관련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三代』의 인물은 세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조의관·조상훈·조덕기의 3대를 중심으로한 조씨 일가의 인물군(A), 김병화·피혁·장훈·필순 부·홍경애 부 등 이념적 인물군(B), 매당집과 수원집을 가운데 두고 몽친 퇴폐적 인물군(C)이다.³¹⁾ 그러나 이러한 유형 구분은 가계나 사상, 매당이라는 범주로 인물들을 묶음으로써 그 범주에 속한 인물들의 이념적 차이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또한 서술자라는 담론 주체를 간과하고 있다. 이는 인물 중심의 연구 방법이 지닌 필연적인 한계이다. 따라서 작품의 의미를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작품에 간여하는 구체적인 담론 주체들을 살피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해석은 종래의 해석과는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종래의 연구는 리얼리즘의 ‘전망’이라는 개념이나 혹은 현재의 관점에서 작품을 평가하거나, 작가의 세계관과 작품의 직접적인 관련에서 『三代』를 평가한다. 이러한 평가는 염상섭의 세계관을 곧바로 작품에 대입하거나, 역사적 당위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있다. 그러나 당대 식민지 사회에서 지주계급이나 중

31) 김윤식, 『염상섭 연구』, 앞의 책, 574~582면.

산층의 몰락을 역사발전의 단계로 볼 때 과연 옳은 방향인가 하는 점도 고려되어야 하며, 『三代』의 작품세계가 다루고 있는 현실 자체가 그러한 당위성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음에도 그것을 요구하는 식의 평가는 재고되어야 한다.³²⁾

조상훈의 이념은 주체들의 담론을 통해 드러난다. 『三代』의 첫 부분을 보자.

덕기는 안마루에서 내일 가지고 갈 새 금침을 아범을 시켜서 꾸리게 하고 축대 위에 섰으려니까, 사랑에서 조부가 뒷짐을 지고 들어오며 덕기를 보고,

“애, 누가 찾아왔나 보다. 그 누구냐? 대가리 꼴하고……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하는 거야. 친구라고 찾아온다는 것이 왜 모두 그 따위 뿐이냐?”(…중략…)

“당치 않은! 삼동주 이불이 다 뭐냐? 주속(紬屬)이란 내 나뉘나 되어야 몸에 걸치는 거야. 가외(可畏) 저런 것을 공부하는 애가 외국으로 끌고 나가서 더럽혀 버릴 테란 말이나? 사람이 지각머리가…….”

하며 부엌 속에 쪽치고 섰는 손주머느리를 쏘아본다(11면).

『三代』 첫 부분부터 조의관은 당당한 말투를 갖고 있다. 며느리에게 제사를 지내고 돌아가라는 엄명이나, 제사 문제를 놓고 아들 조상훈과 벌이는 논쟁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러한 당당한 말투는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이념에 닿아 있다. 그 이념이란 소위 ‘사당과 금고’로 요약된다.

족보 있는 양반 가문을 이루는 것과 재산을 지키고 이어갈 자손을 얻는 것이 그의 평생의 오입이다(105면). 이를 중산층 보수주의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문제에 그렇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재산관리에 애쓰는 것이다. 이러한 이념으로 그는 다른 주체들과 곳곳에서 충돌을 일으킨다. ‘제1충돌’에서는 ××조씨 중시조인 ○○당(堂) 할아버지의 치산(治山)과 묘막을 짓는 문제로 상훈이와 창훈이의 논쟁을 듣고 조의관이 한말과 제24장 ‘집’에서 조의관이 덕기에게 한 당부에서 잘 드러난다. 이렇게 볼 때 ‘사당과 금고’, ‘평생의 오입’이 조의관의 이념이다. 그러기에 그 이념에 대치되는 이념과는 논쟁이 있게 마련이다. 그 대상은 주로 아들 상훈과의 논쟁이다. 이러한 것은 논쟁적 담론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수원집과 손자 덕기와는 다른 담론 양상을 보인다. 이것은 수원집은 조의관의 평생 오입의 대상이며, 혈통을 잇게 해 줄 인물이라는 점과 덕기는 가계를 이어갈 인물이라는 점에서 조의관과 논쟁

32) 김동환, 앞의 글, 15~16면.

의 소지가 없기 때문이다.

조상훈은 다른 여러 주체들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종래의 연구는 주로 조의관, 조덕기, 김병화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조상훈은 이들 모든 인물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 주목을 요하는 인물이다.

조상훈은 제3장 ‘이튿날’에서 등장한다. 제사를 지내는 문제를 가지고 조의관과 조상훈이 다투는 장면이다(42~43면). 조의관의 말은 문제의 본질을 벗어난 다소 시비조의 말이다. 이에 대해 상훈은 분명하게 자신의 입장을 말한다. 조의관이 감정 대립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논쟁은 애초부터 결말이 있을 수 없었다. 그러기에 이들의 대화는 노인의 중재에 의해서 일시 중단될 수밖에 없다.

상훈이 생각하는 자신의 이념은 소위 ‘제삼제국’론(45면)이다. 자신이 살아온 시대상과 덕기 세대의 시대상의 귀일점을 찾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개화기 지식인이었던 그가 위선적 이중생활이나 이중성격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것은 그의 이념이 얼마나 설득력이 없는가를 반증해 준다. 덕기는 이러한 의견에 대하여 반대하고 싶지는 않은 것은 아니었으나, “역시 구습상 부친에게 반대할 수도 없고 또 제 주체에 길게 논란할 수도 없는 터이어서”(45면) 그만두고 만다. 덕기는 부친이 봉건시대에서 지금 시대로 건너오는 외나무다리의 중턱에선 것 같다고 생각한다. 그러기에 상훈은 아버지 조의관에 대하여 거리를 두기도 하면서도 매당집을 드나드는 이중 생활을 하고 있다. 제사 문제나, 대동보소 문제를 가지고 조의관과 첨예한 논쟁을 벌이면서도 마작을 한다거나, 퇴폐적 행위에서는 객체적 담론을 나타낸다. 이러한 연유로 조의관 시신의 해부문제로 상훈이 친척들로부터 무시당하기도 하고 재산을 훔친 일로 모욕을 당하기도 한다.

조덕기나 김병화의 이념도 다른 인물들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난다. 『三代』의 첫 장부터 덕기와 병화의 담론은 상대방의 담론 주체에 능동적으로 작용하는 논쟁으로 시작한다. 이 논쟁에서 병화의 담론이 덕기의 담론을 압도하는 형국이다. 이러한 양상은 흥경애를 만났을 때에도 이어진다. 병화, 주부, 흥경애로부터 자본의 관계가 무너짐으로써 덕기의 존재도 무너지게 된다. 그러나 덕기와 병화가 주고 받는 편지는 덕기와 병화의 이념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물론 편지라는 간접화된 방법이기도 하나 편지가 갖는 특성이 상대

방을 지향하면서 늘 그의 반응이나 대답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덕기나 병화의 이념을 파악하는 중요한 담론 양식이다.

경도로 돌아가기 전에 김병화와 조덕기는 여러 차례 논쟁을 벌인바 있는 데 근본적으로 김병화는 서로가 교체해 나가기가 어렵다고 판단한다.(57면) 이러한 상황에서 조덕기가 병화에게 자신의 변명이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아닌 강한 어조로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일은 병화와 이제 이념 차원에서 맞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덕기는 자신의 평소의 생각을 확인하고 자신의 길을 가겠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이를 두고 동정자(同情者, sympathizer)의 논리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그러나 동정자로서의 조덕기의 의식은 미미한 형태로 나타나 있다는 점에서 비판받고 있다.³³⁾ 조덕기의 행동은 김병화의 이념에 대해 심정적으로만 동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덕기의 이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병화와와의 관계 뿐아니라 조덕기 자신의 생각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덕기가 부친과의 대화에서 한편으로는 반감이 있다가도, 한편으론 부친에 대한 가엾은 생각과 동정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이러한 이해와 동정하는 마음은 덕기가 의경이 문제를 놓고 논쟁할 때도 드러난다(제29장). 그리고 조부가 물려준 금고 열쇠에 대한 생각에 이르면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기가까지 한다.

‘내 일생에 하지 않으면 안 될 가장 중대한 일은 이 금고 여닫는 것과 사당문을 여닫는 것 두 가지밖에 없단 말인가? 마치 간수가 감방문을 여닫듯이. 그리고 그 중대한 사업이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352~353면)

이러한 갈등은 덕기가 필순이를 두고 하는 생각에 이르면 더욱 뚜렷해진다. 덕기는 유물론적으로 기울어진 자기의 사상과는 모순이 되지만 않는다면 하는 생각을 한다. “필순이가 주위 환경에 지배되지 않고 제일 천성(第一天性)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심령의 최후 승리를 믿는 유심적 해결에 기울어지려 함이 아닌가도 싶다”(434면)는 것이다. 그러나 덕기는 분명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덕기는 필순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이념적 갈등을 겪게 된다. 그리고 덕기는 “자기의 감정이 울곧지 못한 것을 혼자 분개”(474면)하기에 이른다.

33) 김동환, 앞의 글, 19면.

김병화의 이념은 조덕기와의 대화나 주고받는 편지에 잘 나타난다. 일상의 측면에서 김병화는 조덕기와의 대화에서 추상적이고 감정적인 ‘비꼬는’ 말투를 사용한다. 그러나 증반부에 오가는 편지에 이르면 조덕기의 입지에 대하여 철저하게 부정하고 있다. 김병화의 이러한 태도 변화는 조덕기가 없는 상태에서 또다른 생활 즉 홍경애와의 애정 문제를 통한 생활을 찾을 수 있으리라는 가능성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이며 더구나 지금껏 조덕기에 대해 비굴할 수밖에 없었으나 이제 조덕기의 아버지가 타락한 모습을 보게 되면서 오는 비판적 입각점을 확보한 측면도 강하게 작용한다³⁴⁾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홍경애의 등장이다. 물론 덕기에게도 필순이의 존재가 문제적이다. 홍경애나 필순이 병화나 덕기의 생활이나 이념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은 『三代』를 해석하는 하나의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³⁵⁾

홍경애를 만남으로써 병화의 삶은 변화되었다. 이것을 덕기는 아직 눈치를 못채고 있었던 것이다. 이후에는 병화는 일본인 반찬가게를 인수해 장사를 하게 된다. 반찬가게는 무언가라는 장훈이의 물음에 병화는 “보호색(保護色)! 사람에게도 보호색은 필요한 걸세.”(414면)라는 대답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답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해외에서 유입된 자금을 가지고 해야될 자신의 임무는 망각하고 있다. 오히려 생활 세계에 함몰되고 있는 것이다.

5. 결론

이 글은 기존 소설 연구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하여, 소설 연구에서의 담론 연구를 통한 내용과 형식을 아우르는 방법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양상섭 소설에 대한 연구도 방법론의 편향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소설은 말하는 사람들이 엮어가는 담론 구성체라는 전제에서 보면, 담론 주체들의 구체적인 담론 양상을 살펴야 할 것이다. 이 주체들은 자신의 이념의 조명을 받으며, 이념을 담론을 통해 실천한다. 따라서 담론 주체들의 담론을 살피는 것은 그

34) 김동환, 앞의 글, 30면.

35) 나병철, 앞의 책, 332~338면 참조.

주체들의 이념과의 관계를 살펴야 한다.

『三代』는 서술자의 담론은 곧 작가의 담론으로 이어지는 직접적으로 대상을 향한 담론이다. 이것은 작가가 서술자를 자신과 최대한 밀착한 결과이다. 그러니까 서술자를 작가는 거리를 느낄 수 있는 타자로서 설정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의 영역에 속하는 서술자를 설정한 것이다. 그리고 『三代』는 인물 간의 논쟁으로 가득차 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타인의 담론이 적극적으로 주체의 담론에 개입하는 내적으로 논쟁적인 말로 점철되어 있다. 또한 편지 형식은 덕기와 병화의 이념을 드러내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편지는 상대방을 늘 염두에 둔다는 점, 상대방을 의식하고 예상되는 응답과 대응을 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은닉된 대화라 볼 수 있다. 은닉된 논쟁이나 은닉된 대화는 단일방향의 작가의 직접적인 말이나 객체화된 직접화법과는 달리 이중적 목소리를 가진 담론이다.

물론 소설의 담론은 주체의 이념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다. 『三代』에서는 주체의 이념이 첨예하게 대립될 때는 논쟁적인 담론이 나타난다. 반면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객체화된 말이나 대상을 지시하는 직접적인 말의 양상을 보인다.

특히 『三代』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종래의 연구들은 작가와 덕기의 관계에 주목하여 중도적 보수주의를 표현한 작품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三代』는 어느 한 주체에 의해 다른 주체들의 이념이 압도되어 지배하는 단일한 담론이 아니다. 각 주체들은 자신의 고유의 이념을 가지고 다른 주체들과 대화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물론 장훈이나 원삼이, 의경이 등은 자신의 고유한 의식을 지니지 못하고 있지만 여타 다른 주요 인물들은 자신의 의식을 갖고 있다. 그렇다고 이들이 완전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에는 많은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체들이 독립된 영역을 확보함으로써 대화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를 두고 제한된 의미의 대화적 소설이라 할 수 있다.

담론주체들의 대화에 간여하는 요소들과 대화의 양상을 살펴보는 것, 나아가 그것의 문학활동의 측면을 탐구하는 것은 차후의 과제로 남긴다. 이러한 연구는 국어교육뿐 아니라 문학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 문헌

-1차 자료

염상섭, 『三代』, 동아출판사, 1996.

-2차 자료

김동환, 「1930년대 한국 장편 소설 연구」, 서울대 대학원 박사논문, 1993.

김윤식, 『염상섭연구』, 서울대출판부, 1989.

김윤식·정호웅 공저, 『한국소설사』, 예하, 1995.

김재용 외, 『한국근대민족문학사』, 한길사, 1995.

나병철, 『한국 문학의 근대성과 탈근대성』, 문예출판사, 1996.

데이비드 루지, 「바흐친과 현대 소설의 담론」, 『바흐친과 문학이론』, 문학과지성사, 1997,

禹漢鎔, 『韓國現代小說構造研究』, 삼지원, 1990.

Bakhtin, M. M., 김근식 역, 『도스토예프스끼 시학』, 정음사, 1988.

Bakhtin, M. M., The Dialogic Imagination, 전승희·서경희·박유미 역, 『장편소설과 민중언어』, 창작과 비평사, 1988.

Holquist, Michael, *Dialogism*,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1990.